

대중문화시대의 '문화읽기'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1

이중환

서울신문사 논설위원·출판평론가

“문화읽기의 책들이 제법 많이 간행되고 있다”는 표제를 쓸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의 장르별로 개별 작품들의 해제집도 늘고 있고, 문화현상을 포괄적으로 점검해보려는 이론적 이념적 무크지와 계간지의 특집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간행물이나 노력들이 과연 어떤 독자나 어떤 문화수용자의 것인가라는 점에서 아직은 제한적인 관심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

보통사람들을 위한 문화읽기

최근 간행된 《대중문화이란 무엇인가?》(대중문화연구회 엮음, 평민사)를 보면, 이 책은 대중문화에 관한 아주 잘 골라진 국내외 논평들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문학연구나 문학평론가들의 전문적 식견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지난 몇년 사이에 대중소설에 대한 흥미가 점차 높아졌지만, 대중소설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문학연구의 중심 분야의 하나로 확립되지는 않았다”는 상당히 분명한 문제의 제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중소설은 현실의 포기가 아니라 승화를 보여준다. 대중소설의 주인공이 독자들과 동일화와 이상화의 화신으로서 초인으로 형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중문학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사회의 권력에 도달하려는 욕망과 사회적 자기동일성을 성취하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이야기인 것이다”라는 서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화읽기란 사실상 다시 현학적 미로로 되돌아가게 마련이다. 문화전문가들에게 이 미로는 일생을 바칠 만큼 흥미있는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문화읽기란 이런 형식의 것이어야 할까—이것이 나의 의문이며 아쉬움이다.

오늘의 문화읽기란 보다 보통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 정보화사회가 일으키고 있는 혁명적 상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광범위한 공중들, 더 쉽게 말하자면 대중의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문화의 수용이 늘고, 따라서 자연 문화감수성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는 이가 《메가트랜드 2000》의 저자 네이스비트인데, 그는 역사상 최대의 르네상스시대가 오고 있다고까지 단정한다.

그러나 이 현상에서의 또다른 문제는 ‘문화수용의 능력’은 보편적으로 습득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문화수용이라는 미명아래 보다 높

‘문화읽기’는 실질적으로 효율있게

써어진 책들을 필요로 한다. 각

장르의 전문가들의 이론적 추구나

분석적 해설을 통한 글은 자칫

개인적 감상에 더 혼란만 가져다준다.

문화읽기에 안내서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문화의 수용은 왜곡되고

물러나게 된다.

오늘의 문화읽기란 보통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은 수준의 문화내용물들을 수용하기보다는 대중적이며 덜 좋은 상업주의적 문화내용물들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일시에 세계화됨으로써 질적인 평가기준이 세워지기 전에 수용량만으로 우선 가치가 성립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최근 개봉된 <레옹>이나 <내츨 본 킬러> 같은 영화이다. 극히 소수의 문화인들이 이 작품들은 단지 폭력의 상업화이며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런 논평이 사회화될 겨를도 없이 흥행은 성공하고, 성공했으므로 기억될 만한 괜찮은 작품으로 영화사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도 폭력을 뛰어넘어 저명한 작품이라는 것만으로 공운을 통과하고 버젓이 상영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문화읽기는 보편적 공중들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삶의 도구로 문화내용물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쓰고 있느냐와, 그리고 어떻게 보다 좋은 작품들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집중되어야 할 요구가 있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이 관점에 서면 현재 다수 간행된 문화읽기의 도서들은 그 대부분이 꼭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장르별 전문가들의 이론적 추구이거나 개별 작품들의 분석적 해설을 통해, 오히려 내버려두면 그나마 개인적 감상이라도 할 만한 것을 더 난삽하게 만들어 알 수 없게 하는 고통마저 주기에 기여할 뿐이라는 지적도 할 만하다.

실질적인 문화수용 가능토록 해야

이런 견해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 대답 역시 이런저런 방법으로 문화비평적 현

학성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간결하게 구체적 책 몇권으로 예시해보려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 바로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간으로 예시하려 한다.

《영화, 보는 즐거움 읽는 기쁨》(알랜 맥도날드 지음, 양혜원 옮김, 선한이웃)은 공중적 영화읽기의 모범답안이다. 이 책은 대중영화와 비디오의 메시지 읽기를 안내한다. “람보의 폭력은 정의이기보다 복수이다” “제임스 본드는 영화에서 폭력을 유모어가 있는 손수레 같은 것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인디어나 존스는 액션으로 가득찬 디즈니랜드 놀이기구와 같은 것이다” 등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평가의 시야를 열어준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영화 사랑하기를 착한 마음으로 권한다. 좋은 나쁜,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간에 오늘의 모든 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구원자’이며, 우리 모두는 삶의 각박함 속에서 바로 이 ‘구원자의 추구’라는 점에 이끌리고 있다는 해안을 안내한다. 이러한 읽기는 별것 아닌 영화 줄거리 속에서까지 주인공들 간의 갈등과 그 구조를 자못 철학적으로 해설하려는 영화비평문들 수백편보다더 도움이 된다.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날드 헤이먼 지음, 김만수 옮김, 현대미학사)는 특히 우리 사회처럼 희곡읽기가 황무지인 풍속에 하나의 경종처럼 눈에 띈다. 희곡을 읽는다는 일은 특별한 기쁨이다. 희곡에서 무대지시문을 읽는 요령을 안다면, ‘침묵’에서 무엇인가를 상상해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희곡을 읽으면서 배우들의 의상이나 색상, 위치 선정을 그려볼 수 있다면 희곡읽기는 어떤 매체보다도 환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이 저자도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어떤 현실인가. 세익스피어의 나라인 영국인들도 최근 백년간 희곡 읽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해왔다는 등의 현실이다. 우리에게 희곡읽기란 더 어려운 즐거움일 수는 있다. 요즘엔 연극 자체가 사회 속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극무대가 취약하므로 연극의 향유를 아예 희곡읽기로 대체해 볼 수도 있을 터이다.

《미술관 관람의 길잡이》(데이비드 핀 지음, 정준모 옮김, 시공사)는 세계여행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 우리의 삶에 대단히 의미있는 문화읽기 길잡이다. 누구나 외국으로 나가면 취미가 있든 없든 뮤지엄을 들르게 될 것이다.

우스개소리인지 모르나 한국인 여행객들은 파리의 루브르박물관에 들어가 모나리자상 앞에서 사진 한장 찍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 해도 괜찮다는 태도가 이 책에 들어 있다.

과학대중화의 선도역할 담당해야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본다는 생각 자체가 무리이다. 오히려 몇개의 중요한 작품만 미리 정보를 통해 선정하고 그것만 보고 나오는 것이 더 잘 보는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은 강조한다. 어떤 사람은 미술관에서 2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30분을 보내기가 어렵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자는 태연히 말한다. 그의 식견은 한결을 더 나아간다. 미술관이란 미술관 자체가 더 작품적이다. 그러니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보기보다 미술관의 이구석 저구석을 살피는 일을 즐기는 것이 더 많은 수확일 수도 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안내가 바로 어떤 문화수용을 형식적 엄숙주의의 부담으로부터 순수히 개인적인 느낌의 경험으로 옮기게 해주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제임스 미치너라는 작가의 소설을 단 한권도 끝까지 읽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쓴 문학수업기 《작가는 왜 쓰는가》(제임스 미치너 지음, 이중환 옮김, 미세기)는 엇그제 단숨에 읽었다. 그는 어니스트 헤밍웨이 《라이프》지에 보내온 원고를 읽으면서 어떤 잡지도 이 원고 그대로를 실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쓰면서, 자신의 작품 역시 한 잡지 편집자가 “이 개자식은 백과사전용 원고와 잡지 원고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원고지 위에 써 놓은 것을 읽어야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문화읽기도 때로는 이러한 작품과 작가의 이면을 먼저 읽는 것이 즐겁게 읽는 능력을 키워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 편이다.

문화읽기는 ‘문화읽기’라는 제목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게 써어진 책들을 필요로 한다. ‘문화읽기’에 있어서야말로 안내서를 잘못 선택하면, 문화의 수용이 왜곡될 뿐 아니라 오히려 물러나고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사적인 편견이 강조된 가이드나 해제집들은 문화능력 키우기에 최대의 적이며 파괴자임을 명심해 뒤야 한다.